

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를
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법

채 대 섭

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문학과

МЕТОД РЕЗУЛЬТАТ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СОЕДИНИТЕЛЬНЫХ
КОНСТРУКЦИЙ «ОСО» И «НИККА»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



<https://doi.org/10.5281/zenodo.10199304>

Чя Дя Соп

Магистрант 1 курса,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
университет им. Низами

서론

이 논문은 인과관계 연결어미중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의 의미 기능에 대한
변별성을 살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를
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인과관계 연결어미란 후행절의 내용에
대하여 선행절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도록 하는 어미를 의미한다. 특히
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선. 후행절은 상호 의미적 의존성이 강하다.
또한 인과관계는 ‘-니까, -어서, -기에, -므로, -느라고’와 같은 다양한 어미를
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. 그 중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는 사용 빈도가 높고 두 형태
사이에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
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.

(1)

① 너무 빨리 달리(어서, 니까) 붙잡기가 어렵다.

② 날씨가 좋(아서, 으니까) 등산하기도 좋다.

③ 어머니가 미인이(어서, 니까) 아이들이 예쁘다.

(1)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가 교체되어 쓰일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뚜렷한 의미 차이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. ①의 선행절 서술어는 동사이고, ②는 형용사, ③은 서술격 조사가 쓰인 문장이다. 이처럼 선행절 서술어의 차이 없이 이 두 어미는 교체되어 나타날 수 있다. 그런데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면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가 늘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.

(2)

①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.

② 집에 일이 있으니깐 먼저 갑니다.

(3)

① 중요한 물건이어서 잘 보관해라.

② 중요한 물건이니깐 잘 보관해라.

(2)-②보다 (2)-①이 자연스럽고 (3)-①에서 ‘-어서’의 쓰임은 제약이 따른다. (3)의 경우는 후행절의 유형에 따른 쓰임의 차이를 보인다. 이러한 경우 연결어미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는 서로 교체되기 어렵다. 동일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두 어미가 각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의미 기능의 차이에 근거하는 듯하다. 따라서 이 논문은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이들이 서로 교체되어 쓰이는 경우, 교체되어 쓰일 수 없는 경우, 교체되어 쓰일 때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살피면서 두 어미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.

2.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의 상황(경우)별 사용 구분

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묶는 관계이다. 이러한 추리와 판단의 사고 작용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다. 인간의 사고는 언어를 통해 드러나고 이 때 언어는 사고 내용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. 인과관계라는 사고 작용도 언어란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.

이기종은, 원인은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것, 이유는 원인 항에 화자의 인식 양상이 첨가된 것으로 구분한다. 곧 두 사건 사이에 상관성이 물리적인 힘이나 화학 작용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는 원인이 되고, 사건 사이의 상관성이 인간의 사유 작용이 개입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.

1) ‘원인’과 ‘이유’의 경우가 달리 발생할 때

(4)

- ① 비가 와서 길이 질다.
- ② 비가 오니까 마음이 울적하다.

(4)-①은 자연 세계에서 물리적 힘이나 화학 작용에 의해 두 사건의 상관성이 발생하는 경우로 ‘원인’이, (4)-②는 인간의 사유 작용이 관여한 경우로 ‘이유’가 된다고 한다. 이에 따라 (4)-①에서는 ‘-어서’의 쓰임이, (4)-②에서는 ‘-니까’의 쓰임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.

그러나 항상 (4)의 쓰임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. (5)-①은 ‘-니까’, (5)-②는 ‘-어서’가 쓰였고 모두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.

(5)

- ① 비가 오니까 길이 질다.
- ② 비가 와서 마음이 울적하다.

이처럼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를 각각 원인과 이유의 의미자질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.

2)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

(6)

- ①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진다.
- ② 날씨가 무더우니까 음식이 금방 상한다

(6)처럼 선행절의 내용이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지만 충분히 ‘-니까’를 사용할 수 있다. 물론 (6)의 문장에서 ‘-니까’ 대신 ‘-어서’의 쓰임도 가능하다. 개별적인 사건이 반복되면 이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. 특히 자연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그 관계를 규명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.

3) 문장 속에 ‘글썄’나 ‘몰라’가 포함되는 경우

(7)

영희 왜 갔니?

① 글썄, 비가 와서 갔어.

몰라, 비가 와서 갔어.

② 글썄, 비가 오니까 갔어.

몰라, 비가 오니까 갔어.

(7)-①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라고 생각할 때에만 ‘-어서’가 쓰일 수 있는데, ‘글썄, 몰라’와 같은 어휘가 쓰여서 어색하고, (12)-②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계기가 되었다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낼 뿐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‘-니까’가 자연스럽다.

4) 두 사건 사이의 상관성의 본질에 따른 구분

(8)

① 보약을 먹어서 기운이 난다.

② 보약을 먹으니까 기운이 난다.

연결어미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는 두 사건 사이의 상관성을 인과관계로 전달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으로 화자가 두 사건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문법 기제이다. 다만 ‘-어서’가 쓰인 문장이 ‘-니까’가 쓰인 문장에 비해 두 사건의 상관성을 필연적 관계로 강조하지 않고 전달한다고 본다. 곧 화자가 두 사건의 상관성에 자신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고자 할 때 ‘-니까’를 사용한다고 본다.

5) 두 사건에 대한 화자의 입장과 절달 강도에 차이가 있을 때

(9)

- ① 비가 와서 마음이 차분해진다.
- ② 비가 오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.

(9)에서 ‘비가 오다’와 ‘마음이 차분해진다’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나 자연적 현상에 따른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. 두 사건은 화자의 경험에 따른 추리 과정에서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. 이 때 ‘-어서’가 쓰인 문장은 두 사건의 상관관계를 더 강조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전하기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인과성은 두 사건의 상관관계를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, 화자의 사유 과정에서 두 사건 사이의 필연성에 대해 화자의 견해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전하고자 할 때 ‘-니까’의 쓰임이 일반적이라 본다.

6) 화자의 의도와 확신에 따른 구분

(10)

- ① 집에 없는 걸 봐서 분명히 오락실에 갔을 거야.
- ② 집에 없는 걸 보니까 분명히 오락실에 갔을 거야.

(10)-①, ②는 모두 가능한 문장이나 (10)-②가 좀 더 자연스럽다. 그 이유는 ‘분명히’라는 강조 표현의 부사와 ‘-니까’의 쓰임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의 확실성을 아울러 강조하기 때문이다. 곧 두 사건의 인과성을 화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할 때는 ‘-어서’로, 화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‘-니까’를 통해 표현한다.

7) 문장 유형에 따른 구분

(11)

- ① 바람이 불(어서, 니까) 낙엽이 떨어진다.
- ② 차표가 없(어서, 니까) 되돌아 왔어?
- ③ 아이가 잠을 자(*아서, 니까) 조용히 해라.
- ④ 배가 아프(*어서, 니까) 병원에 가자.
- ⑤ 영수가 원하(*어서, 니까) 내가 양보하마.

(11)-①은 평서문, (11)-②는 의문문이다. (11)-①, ②에서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의 쓰임은 모두 가능하다. 그러나 다음의 의문문에서 ‘-어서’는 제약이 따른다.

(12)

- ① 날씨가 좋(*아서, 으니까) 산책할래요?
- ② 탑승까지 시간이 좀 있(*어서, 으니까) 주변을 구경할래요?

(11)-②와 (12)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, 심층적으로는 서로 성질이 다르다. (11)-②는 일반 의문문이나, (12)는 청자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이다. ‘-어서’는 청자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의 경우 쓰이기 어렵다. 또한 (11)-③의 명령문, (11)-④의 청유문, (11)-⑤의 약속문의 경우에서도 ‘-어서’는 ‘-니까’와 달리 제약을 받는다. (11)에서 볼 수 있듯이 ‘-

니까’는 진술, 단언, 행동 수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서법 예까지 두루 쓰이고 있다.

8) 이유의 강도에 따른 구분

(13)

- ① 대접을 잘해 (주셔서, *주셨으니까) 감사합니다.
- ② 배가 (아파서, *아프니까) 어제 학교에 못 갔어요.

(13)-①에서 ‘-어서’가 쓰인 경우는 단순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지만 ‘-니까’가 쓰인 경우는 고마운 이유를 따지고 드는 강한 표현이어서 어색하다고 하였다. 우리 사회의 정서상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이유까지 밝히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면 ‘-어서’에 의한 표현이 자연스럽다. ‘-니까’가 쓰인 문장은 이유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한 이유가 더욱 부각되어 자칫 따지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사과의 표현에서도 자신의 실수에 따른 미안함과 죄송함이 진실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유를 강하게 밝히지 않는 ‘-어서’의 쓰임이 자연스럽다.

3. 결론

지금까지 인과관계 연결어미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의 의미 기능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.

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는 기본적으로 두 사건의 상관성을 인과관계로 맺게 하는 연결어미이다. 이 두 어미는 사용 빈도도 높으며 특히 교체되어 쓰일 때는 그 의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. 이에 따라 두 어미의 의미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. ‘-어서’를 원인으로 ‘-니까’를 ‘이유’로 보거나, ‘원인’, ‘이유’를 모두 아울러서 보기도 하고, ‘이유’, ‘계기’ 등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.

본 논문에서는 이 두 어미가 문장에서 인과관계를 드러내주면서 ‘-어서’는 단지 화자의 논리 과정을 진술하는 것으로, ‘-니까’는 화자의 논리 과정에 필연성을 부여하여 강조하는 문법 기제로 규정하였다. 후행절의 문형으로는 ‘-니까’가 제약 없이 다양하게 쓰이지만 전체 사용 빈도를 보면 ‘-어서’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. 그만큼 보편적으로 두 사건의 상관성을 드러낼 때는 ‘-어서’가 쓰인다는 것이다. 또한 ‘-어서’는 두 사건 사이의 필연성을 강하게 전달하지 않기에 청자에게 행동의 동기 부여나 행동화로 이끄는 데는 ‘-니까’가 자연스럽고, 감사나 사과의 표현에서는 ‘-어서’가 자연스럽게 쓰인다.

이 연구는 ‘-어서’와 ‘-니까’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 다양한 인과관계 표현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각 표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외국인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사가 인과관계를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.

참고문헌

1. 남기심(1983),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‘-니까’ 구문과 ‘-아서’ 구문, ‘국어의 통사. 의미론’
2. 이기종(1988), 국어 인과구문에 관한 연구,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
3. 기제(機制) : 주어진 틀 또는 만들어진 틀
4. 언어학에서 서법(敍法)은 동사의 형태론적 굴절이나 교착으로 양태나 화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. 서법은 문장이 보여주는 사건의 현실과의 관계나 의도, 듣는이에 대한 태도 등을 전달한다.
5. 이아림(2014) <김소월 시의 문학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안 연구>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